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이 21일 오전 제주도청 집무실에서 원희룡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있다. 이날 면담은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중도보수 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박위원장 측에서 제안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만기자

4·15총선 제주선거판 '점입가경'

원희룡 보수신당 합류로 선거구도 '변수' 떠올라
 송재호 균형발전위원장 출마 따라 여야 쟁점 분주
 설연휴 기점 민심잡기 통한 진영간 세대결도 예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중도보수세력 통합에 가세하면서 제주지역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판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아울러 송재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전격 사의를 표하면서 제주정가에 태풍을 예고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원 지사는 21일 오후 중도보수세력 통합 참여와 관련 입장문을 통해 "혁신통합위원회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중도보수세력의 통합과 신당 창당 움직임에 적극 공감한다"며 "저 역시 이런 흐름에 미력하나마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원 지사는 "이러한 혁신과 통합 노력이 과거 정당으로 회귀가 아니라 미래가치를 담고 희망을 얘기할 수 있는 통합신당을 만드는 것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이 노력) 설 명절을 맞는 국민들에게 기대와 희망을 주고, 대한민국의 앞날에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는 바람이 되길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원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집무실에서 박형준 혁신통합추진위원장과 면담을 진행했다. 이 면담은 올해 치러지는 4·15총선에서 자유한국당과 새로운보수당의 중도보수통합을 시도하고 있는 박 위원장 측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다.

면담이 끝난 뒤 박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원희룡 지사가 갖고 있는 경륜과 콘텐츠가 통합신당에 필요하다"며 "(원 지사의 참여가 이뤄진다면) 현직 도지사 신분이기 때문에 4·15총선에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한다. 정당원 신분으로 당의 현대화, 미래세대대화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2일 다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예정인 원 지사가 정치 행보를 공식화하면서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보수층 결집을 통한 현 정부 심판론에 힘을 보탬 것으로 예측되면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전격 사의를 표한 송재호 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자로 나설 것을 공언하면서 전락공천 예고로 요동을 치고 있는 제주시 갑 선거구는 물론 도내 총선 판도에도 여야간 쟁점이 분주해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설 연휴를 기점으로 민심잡기를 통한 본격적인 진영간 세대결이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여·야의 공방전도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송병기 기자

선택2020 제주의 미래 한라일보·제민일보·JIBS 공동기획 I <하>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중요성

변영된 제주미래로 나아가는 시발점

머슴 잘못 선택하면 국가 미래·국민 행복은 멀어져
 선거 참여는 민주주의 실현 가장 기초·필수적 절차
 선거후 결과 겸허히 수용·대립 접고 역량 결집해야

공무원을 국민의 머슴이라고 한다. 이 중 큰 머슴은 대통령, 국회의원, 시도지사, 지방의회 의원 등 선거로 선출된 정무직 공무원들을 말한다. 그런데 이 머슴들을 잘 선택하지 않으면 국가의 미래와 국민의 행복은 멀어지게 된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선출하는 날이다. 통계에 의하면 국회의원 선거 투표율은 제18대 46.1%를 기점으로 제19대 54.2%, 제20대 58%로 높아지는 추세이다. 이번 선거 투표율은 제17대 선거투표율 60.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상이 조

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머슴만 맞는 것은 올바른 주인의 행동이 아니다.

제주지역의 선거는 전문가들도 예측하기 어렵다고 하며 전국적 선거 풍향으로 바라보기도 했다. 하지만 제17대 선거에서부터 제20대 선거에 이르기까지 3개 선거구 모두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다. 이런 흐름이 계속 될 것인가 아니면 변화가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제주 국회의원 선거의 관전포인트가 될 것이다.

새로운 변화를 이번 선거에 당선되는 국회의원들에게 기대한다. 첫째, 국책사업인 제2공항 추진여부에 대한 명확한 소신과 이를 강력하게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끝나지 않고 있는 4·3에 대한 완전한 진상규명과 보상을 위한 관련 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셋째,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에 대응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새로운 위상 정립과 국제자유도시에 관한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관련 법률이 개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을

도모할 수 있는 인사가 선출돼야 한다. 그런데 도민들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국회의원 역할에 대한 한계론 때문이다. 제주지역에서는 3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고 있는데, 이 숫자로는 전국 1%라는 지역세를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별반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 생각 속에서 후보자의 이념과 자질보다는 '정당위에 관당'이 선거표심으로 나타날까 두려운 게 현실이다. 그러나 이를 극복하지 않고 제주의 미래는 없다. 선거 후 우리는 다시 하나가 돼야 한다. 누가 당선되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선거기간 발생했던 대립을 접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양덕순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국회는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헌법적으로 보장된 법률 기관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예산을 다루는 예산심의 기관"이라면서 "이번 21대 국회는 올바른 사람들이 선출돼서 국민들을, 또는 국가의 발전을 향상시킬 수 있는 법률의 제정이나 예산 심의가 이뤄져서 지금보다 나은 대한민국이 만들어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론3사 공동취재단>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시동'

도, 올해 정보화분야 127사업에 464억 투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2021~2025) 수립 등 지능형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해 올해 정보화분야에 464억원을 투자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올해 >건전 정보문화 정착 및 도민과 소통하는 정보사회 조성 >스마트 도정 구현을 위한 행정정보서비스 운영 >정보보호를 통한 안전한 사이버 환경 조성 >ICT기술 활용 및 지역융합산업육성

등 4개 중점과제를 설정하고 127개 정보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사업으로는 >제주도의 향후 5개년 지역정보화의 마스터 플랜인 기본계획 수립(1억원) >도 산하기관(행정시 포함) 전산실 통합 이전 방안 컨설팅(1억5000만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70억) >홈페이지 콘텐츠 개편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4억8000만원) >정보보안 시스템 노후장비 교

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인증(9억6000만원) >빅데이터 통합 플랫폼 고도화 및 분석모듈 구축, 공공데이터 개방 등 빅데이터 관련사업(20억원) >C-ITS(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실증사업(2차년도), ITS 장비관리 및 노후장비 교체사업(76억원) 등이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도민이 행복한 더 큰 제주를 만들기 위해 DNA(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기반 디지털 시대를 선도하는 정보화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사랑으로 지은 집!
 사랑으로 가득한 집!
부영 사랑으로

제23회 제주불꽃축제 The 23rd Jeju Fire Festival
제주불꽃축제
 들불, 소망을 품고 피어올라!
 Fire on the Field, Rising up with All the Wishes
 野火燃烧, 放飞希望
 野焼き、希望を孕んで燃え上がる

2020. 3. 12(목) THU ~ 3. 15(일) SUN
 오름불놀이 2020. 3. 14(토) SAT

제주시 일원(새별오름) Jeju-si Area(Saebyeol Oreum) 濟州市一帯(曉星岳) 濟州市一帯(セビョルオルム)

주최 제주 제주시 주관 제주시관광축제추진위원회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